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43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2年

天曆 1월

2024년 양력 2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SPECIAL BRIEFING

HJ NEWS

효정과 충정의 도리를 다하는 한해가 되자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데스밸리 성지 방문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

2024년 甲辰年, 희망찬 한 해 총진군하자

CES 2024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



효정과 충정의 도리를 다하는 한해가 되자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장 겸 천심원장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봉헌으로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을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 참어머님께서 천상의 참아버님과 일심일체를 이루시어 지상의 섭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참어머님께서 2020년 6월 1일 지도자들에게 “천심원에서 철야정성을 들이라”는 절대적인 책임을 주시고, 지상섭리를 위한 주체적 천상세계의 영적 기반을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투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비전 2020 승리 후 천보대축제를 하늘 앞에 봉헌하셨고,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명해주시며 세계정성본부로써 사명을 더욱 크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일문일답하는 천일국 시대의 은혜 속에 주요섭리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매일 천심원과 연결하여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루고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 5개월여 만에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이 어느덧 900회를 넘어서게 되었고, ‘꾸준한 정성을 들이다 보니 참부모님의 심정과 실체성령의 역사를 실감했으며, 참부모님과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승리의 간증이 매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2세 · 3세 미래세대들이 천보수련과 천심원 정성을 통해 영계를 체험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부모님과 영육 아울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참부모님의 위상을 실감하여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2023년 11월 11일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마지막 날, “참아버님께서 영계에서 출동하실 수 있도록 천심원과 가정연합이 하나 되어 천심원에서 간절히 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며 정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신한국가정연합과 UPF라는 양 날개를 펼치시고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간곡하신 심정을 표하시며 온 정성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또한, 직접 임명하신 천심원 특별순회사들이 교회 현장 곳곳을 다니며 천심원의 은혜와 실체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 신한국의 영적부활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의 복종과도 같은 HJ천주천보수련원과 천심원은 신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인류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정성을 들이며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더욱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를 통해, 온 세계와 천주가 동참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포함 5만여 곳 이상에서 합심하여 하늘 앞에 정성의 제단을 봉헌하였습니다. 가정연합과 UPF를 비롯한 섭리기관이 천심원 정성을 들이면서 이루어낸 활동 보고를 나누었고, 간절함에 사무친 모두의 통성기도는 하늘 뜻 앞에 반드시 승리를 봉헌해드리겠다는 축복가정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힘차게 2024년 새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지인참부모님께서 희망이자 선물로써 인류에게 내려주신 천심원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적의 보고를 매일 나누며, 천보섭리를 통해 실체성령의 역사와 그 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섭리의 황금기를 맞아, 신종족 메시아의 책임을 넘어 효정과 충정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부모님께서 주고자하시는 모든 천운 천복을 상속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효정과 충정의 도리를 다하는
한해가 되자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장 겸 천심원장

특집

- 10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
13 2023 HJ천주천보수련원 총결산
10대 뉴스
18 세계활동보고

SPECIAL BRIEFING

- 22 2024년 甲辰年,
희망찬 한 해 총진군하자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HJ NEWS

- 26 CES 2024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
28 박보희 회장 성화 5주년
윤기숙 사모 성화 7주년 기념예배

현장소식

- 신미국
29 2023 평화상 축하 연회
신아시아태평양
30 비전 2025-2027 승리를 위한 정성:
12일간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참부모님 말씀

- 04 천일국의 근간은
주권과 백성, 국토
천성경 제12편 제2장 2절

- 06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

참부모님 동정

- 08 데스밸리 성지 방문

신아시아태평양

- 31 2023 캄보디아 통일무도 전국대회
신중남미
32 제28차 중남미 33개국을 위한
특별납시정성
신남미
33 브라질 HJ 스튜디오 개관식
신아프리카
34 모잠비크, 21일 원리 수련회 및
효정천보특별수련
35 잠비아, 21일 원리 수련회

효정증거

- 36 잊지 못할 내 고향, 부르키나파소
캐서린 플래너





천일국의 근간은 주권과 백성, 국토

천성경 제12편 제2장 2절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것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 인류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지구성을 당신이 사랑하는 국토로 만들고, 국토와 백성을 합해서 하나의 주권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세계입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무엇이나?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연 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과 인연 맺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권자는 백성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백성과 하나되어 자기에 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추만대의 후손들이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을 치리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형성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됐다는 사실이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나라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불변의 주권을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을 지상에 보내어 절대적인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일을 진행시켜 나왔지만, 현실점에서 하나의 국가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늘의 사람을 보내 그 일을 경영시키고, 추진시키고, 성사시키기 위해 애써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하늘의 역사입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아들을 구하라고 하였습니까, 나라를 구하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입적카드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하늘 전권을 중심삼은 주권과 백성과 국민을 갖춘 천일국의 기반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정적인 자기 가치 결정은, 여러분이 일족을 얼마만큼 하늘 앞에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왜 어려움을 겪어왔느냐? 종교를 협조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입니다. 나라가 있었다면 종족이 반대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그 나라권 내에 남아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고, 어디 가든지 피를 흘리는 제물의 길을 걸어온 것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있고 나라만 있었더라면 제물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나라와 국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국민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아들딸을 몇이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리 억 천 만금을 가지고 잘살았다고 하더라도 다 흘러갑니다. 그것은 자기 모든 물질과 지식과 자기 생명까지, 타락한 내 생명까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해야 됩니다. 투입하는 전체가 가중함에 따라서 그 가치는 비례해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가정천국 이상을 위해서 전진하는 대표적 교회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는 나라가 깃들고, 세계가 깃들고, 하늘땅이 깃들고, 하나님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혈족의 인연을 가졌으니, 앞으로 돌감람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감람나무 씨를 가지고 만국 어디에 가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만국 만방을 넘어서 동일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고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천국 백성을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탕감의 역사가 없는 자유 해방권의 천국 백성을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통일교회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늘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은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계가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복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그다음에 하늘부모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지금 세계도처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간다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를 덜 본다고 해서 멈출 일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무지를 일깨워서 환경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땅과 바다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과 같은 참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면에 하나가 되어서 협조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흘러가 버립니다. 이 나라 복귀를 위해서, 세계 복귀를 위해서 하루도 한 시간도 일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늘의 지혜를 빌려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바꿔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 놓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 한 가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늘부모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뻐하실 수 있는 실적을 매달 매년 더 크게 높게 돌려드리는 참 효자 효녀 충신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진 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리라 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내린 축복의 말씀입니다.

강하게 결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늘 앞에 실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새롭게 변신하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스밸리 성지 방문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11년 천력 12월 3일(양 1.13)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부에 위치한 데스밸리를 방문하시어 특별한식을 거행하셨다.



참부모님께서 1962년 서울 일원 5개 성지 택정 후 그곳의 흙과 돌을 세계적으로 접붙여 주고 정성과 승리 기반을 동등한 기준에서 분배해 주시는 의식을 거행하셨다. 이는 인간 타락 전 천지만물을 창조한 기준에서 아담 승리권의 심정적 기준을 갖춘 하늘 자녀 입장인 선교사를 각국에 파송하며 세계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가운데 데스밸리는 (양)1965년 2월 25일 참부모님께서 미국 55곳 성지 중 4번째로 택정한 장소이다.

소금과 같이 본이 되는 삶

데스밸리 성지 축도

천일국 11년 천력 12월 3일(2024.1.13) | 미국 네바다 주 데스밸리



사랑하옵는 하늘부모님! 오늘 이 대륙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네바다 데스밸리에서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손길을 느끼옵니다. 생명체가 창조원칙에 따라서 순환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창조주께서는 아시고 인간과 동물세계에 내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인류는 창조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신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역사를 하시며 얼마나 힘들게 기다려 나오셨습니까.

당신께서 오래 기다리신 끝에 마침내 1960년에 참부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참가정들을 세상에 많이 배출하였으나 아직도 하늘부모님을 모르는 세계 80억 인류를 생각하면 너무도 미미한 수라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하오나 하늘부모님! 천일국 12년을 맞이하는 이 청룡의 해에 반드시 하늘섭리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 20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인류 앞에 소금과 같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삶으로써 창조주 하늘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천일국의 축복, 천보가정들이 많아진다면 그들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소금과 같은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고, 그 시기가 앞당겨져 2024년에 이뤄질 수 있다면 오래 기다려주신 하늘부모님 앞에 기쁨과 송영의 잔치로 2025년에 입궁식을 하는 그날을 향해 하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들을 맞고 싶습니다.

하늘부모님! 오늘 이 데스밸리에서 하늘을 공경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들이 이 대륙, 이 나라,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이 소금을 통하여 하늘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의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나이다. 아주!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

‘2024 원단 전 세계 천심원 철야정성 특별기도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19일(양 12. 31) 전 세계 150만 명 이상(현장 5,000명)이 함께 정성 들이는 가운데 천성왕림궁전 대성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1부

특별기도회 개회식은 (양) 2023년 12월 31일 저녁 8시, 이기식 신한국 부협회장의 사회로 개회기도(김동연 신한국 부협회장), 세계지도자 인사 메시지(문연아 제1비서실장, 정원주 제2비서실장), 인사말씀(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이기성 천심원장), 대륙별 인사영상, 효정문화공연(2세 이가영), 세계활동보고(송용천 세계회장), 효정보고(황보국 천일국 대사관장), 효정찬양, 특별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문연아 제1비서실장은 “참어머님께서 천심원 정성을 통한 식구들의 현장 보고를 받으실 때 각별히 식구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신다.”며 “참어머님께서 식구들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귀히 여겨 함께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신다.”고 밝혔다. 문연아 비서실장은 “참어머님을 모시고 2024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들이며 승리의 결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정원주 제2비서실장은 “새해 새로운 시작과 방향과 목표를 위한 희망찬 출발을 기하는 데 있어 철야정성 기도회는 참부모님과 함께 전 세계 통일가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이다.”며 “참어머님의 열정과 중단 없는 전진 속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천상에 계신 참아버님과 지상에 참어머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가운데, 2024년 한 해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자녀, 하늘의 보배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광석 신한국협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신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 3배가를 목표로 전진한 결과 지난 11월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남양주 교회는 500여 명, 구리 교회 1,500명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창원에서는 6,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구국구세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실적을 봉헌했다.”며 “2023년 전체 평균 20% 성장을 이룬 교회는 물론, 100여 명이었던 중형 교회 140군데가 많은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송광석 협회장은 “2024년에도 신한국 협회는 천심원과 완전히 하나 되어 천운이 함께하는 신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른 용처럼 비상하는 새해를 열어 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새해 인사와 함께 UPF의 활동 방향과 대전환기의 각오를 밝혔다. 양창식 세계의장은 “UPF는 참부모님께서 정성으로 투입하신 세계적인 기반을 한국에 연결하여 가정연합과 함께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UPF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가정연합과 천심원은 물론 모든 섭리기관과 하나로 연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륙별 지도자 영상 시청 이후 송용천 세계회장은 참여머님을 중심한 전 세계 축복가정들이 많은 것을 이룬 2023년의 세계활동보고를 공유하며, “참여머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 이후 대전환 시대, 새 시대를 위해 새출발을 명하셨다. 이에 천심원과 가정연합이 하나 되어 신령과 진리로 전 세계 대륙본부에 그 뜻을 전하며, 활발한 대륙활동, 미래인재 양성, 심정화 교육, 전도, 선교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용천 세계회장은 “2023년, 참여머님과 하나 되어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2024년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참여머님께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을 올려드리자.”고 강조했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참여머님의 심정과 하나 된 2세·3세들이 신앙을 뿌리 내리고 진정으로 참부모님을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참여머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참여머님께서는 황막한 사막과 같은 외로운 자리에서도 중단없는 전진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정성의 결과를 보이며 그 승리의 업적을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온전히 상속받기를 바라시는 간곡하신 마음으로 독생녀 실체성신 참여머님을 교육하고 천심원 정성을 통해 직접 하늘과 공명할 수 있는 천심원 섭리를 내려주셨다.”며 “천심원 정성과 활동으로 자녀가 참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하늘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것이 자녀 된 천보가정의 사명이다.”고 전했다.

2부

이어서 2024년 1월 1일 0시, 원단을 맞이하였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특별기도회가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참부모님 원단축도 및 말씀, 경배, 합심찬양(천심찬양단), 합심공명기도, 고천문(이기성 천심원장), 합심결의기도(송용천 세계회장), 억만세(황선조 남북통일국민연합 의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원단 특별기도회는 HJ천주청평수련원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936회 기대 위에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2024년을 출발하며, 세계를 넘어 천주가 하나 된 가운데 독생녀 실체성신 참여머님을 모시고 천상에 참아버님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의 제단을 더욱 높이 쌓아가겠다는 다짐의 결의와 함께 억만세 삼창을 올리며 은혜롭게 성료했다. 



2023 HJ천주천보수련원 총결산 10대 뉴스

하늘부모님께서 자유로이 치리하실 수 있도록! 참아버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독생녀 실체성신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비전 2025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

01 한학자 천지인참부모 성탄 80주년 기념 2023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참부모님께서는 한학자 천지인참부모 성탄 80주년을 맞아 섭리의 완성체인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해 올리시고 전 세계에 영광과 승리의 새 시대를 개문해 주셨다. 그 토대 위에 참어머님께서 하늘부모님께 약속하신 지상낙원 에덴동산 실현을 위한 'HJ마리나'와 '가평 베고니아새정원'을 봉헌하시며 축복해 주셨다.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학자 천지인참부모 성탄 80주년 기념 효정 천보특별 대역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축복가정이 참부모님의 사랑과 대역사의 놀라운 영적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02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신통일한국의 길

-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 지도자 효정특별수련
6.8~11

- 신한국 지도자 효정특별수련 및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
11.10~11



참부모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을 기점으로 전도를 통한 국가복귀 기반조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 지도자 효정특별수련과 신한국

지도자 효정특별수련 및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는 신한국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천심원 강의, 기관별 전략보고, 전도출정예배로 진행됐다.

천보역사와 천심원 은혜 속에 신한국 공직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실질적인 예배 부흥, 교회 성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03 천심원 특별순회사 출발

- 천심원 특별순회사 워크숍 6.13~18

- 특별순회사 임명 및 전국 순회: 전주대교회 7.5



참부모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심원 정성이 중심되어 영·육계가 총진군되어야 한다.”시며 “천심원 특별순회사는 신한국 전체에 천심원 은혜를 전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천심원 특별순회사 워크숍과 전국 특별순회사로 임명된 순회사는 7월을 기점으로 신한국 전체 현장을 순회하며 천심원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04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 제800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 7.1

- 제900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 11.10

참어머님의 “가정연합과 UPF가 천심원과 하나 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명에 따라 진행된 천심원 기도회가 전 세계 교회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실천하고 있다. 전 세계 분원과 교회에서는 매회 온라인을 통해 동참한 가운데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에는 매주 3만 명 이상이 합심하여 정성의 제단을 봉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이 어느새 제900회, 누적 인원 50만 명을 돌파했다.



05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한원둘레길 조성

청평수련원을 중심으로 복귀섭리를 이끄시며 정성 들이신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고자, 그 발자취를 따라 한원둘레길을 조성했다. 한원둘레길은 한원집을 시작으로 하늘바위(가칭), 효정바위(가칭), 물푸레나무, 달래강 다리, 천심호를 바라보며 쉬는 평상, 생강나무 길, 에덴동산 이야기가 있는 터, 정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해 식구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셨던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게 된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한원둘레길을 걸으며 천일국 시대의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심정을 체휼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06 신미국 천심원과 하나되어 열어나가는 초종교시대!

- 제41차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IAPD 초종교 기도회 4.6
- 신미국 ACLC 목사 천심원 기도회 5.5
-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미국 ACLC 집회와 신미국 2세권 특별집회 9.29~10.8
-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특별연합예배 10.15

세계정성본부 천심원에서 열린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IAPD 초종교 기도회와 신미국 ACLC 천심원 기도회는 참어머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늘부모님성회 큰 우산 아래 교파와 종파를 초월한 각 종단의 이름으로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매우 뜻 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미국 ACLC 집회에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가정연합의 깃발을 높이며 독생녀 참어머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신미국 2세권을 중심한 특별집회에서는 미래세대들이 참어머님의 위상과 가치, 심정을 체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 나아가 HJ천보수련원에서는 참어머님 승리귀국을 기하여 신한국 전체 공직자와 천일국 중심식구가 모인 가운데 참어머님을 모시고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특별연합예배를 진행하였다.



07 전 세계 천심수행과 영성교육

- 2023 아시아탐견 Youth 수련회 4.24~5.7
- 신대만 21일 효정천보특별수련 7.23~8.12
- 신유럽 분원 청년 21일효정특별수련 8.13~9.4
- TOP GUN College 9.12~20
- 1박 2일 통일영성수련 11.22~24
- 효정 천심천보영성 40일 수련회 10.5~11.13



HJ천주청평수련원은 전 세계 가정연합을 대상으로 천지인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천심수행과 영성교육을 개최했다. 그 결과 하늘 앞에 순수한 2세 3세 지도자를 양성하는 천심천보영성 40일 수련을 비롯하여, 전 세계 축복가정과 미래인재를 대상으로 한 효정특별수련과 통일영성수련은 실체성신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 된 가운데 천보 교육과 집중 수련-수행으로 진행됐다.

참여머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진행된 수련회는 하늘부모님성회의 큰 우산 아래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HJ천주천보수련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8 분원섭리와 천보집회

- 전 세계 분원섭리(집회)
- 신동아프리카 황성민 분원장 취임 8.19~20
- 신서아프리카 사쿠와 다카미츠 분원장 취임 8.27



참부모님께서서는 전 세계 식구들의 신앙심을 결집하기 위한 전 세계 분원섭리를 명하신 바 있다.

참여머님의 말씀을 토대로 HJ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천심원을 중심으로 신미국, 신아시아태평양, 신중남미, 신유럽중동, 신동서아프리카에 분원을 봉헌했다. 이는 전 세계 식구들에게 천심원과 천보역사 은혜를 상속시키기 위해 이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참여머님께서 신아프리카 섭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동서로 나누시며 신동아프리카 분원(황성민 분원장)과 신서아프리카 분원(사쿠와 다카미츠 분원장)에 분원장을 임명하셨다.

09 2023 추계 효정천보특별대역사

‘2023 추계 효정 천보특별대역사’가 전 세계 99개국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참부모님께서 내려 주신 천운을 연결하는 만물나무 성초전수식은 신통 일세계 안착을 위해 참된 자녀로서 뜻 길을 전진하겠다는 결의와 다짐, 공적인 만물 축복의 운세를 기원하는 간절한 합심기도로 진행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수능생 및 취업준비생 승리 기원 기도회’는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성장과 육성을 기원하는 따듯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련됐다. ‘사랑나무 버스킹’, ‘캐리커처 이벤트’, ‘웹툰 사전이벤트’, ‘먹거리 장터’, ‘HJ천원단지 성지순례’ 등은 전 인류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참여머님께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0 100만 명 교육 달성

2023년 100만 명 교육목표, 설렘과 기쁨과 환희의 해! HJ천주천보수련원은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2023년 4번의 대역사,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제900차)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다.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심천개방원 충효개문주 효진님, 천총관 흥진님, 충심봉천 대모님께서 친히 수련을 진두지휘하시는 가운데, 2023년 한 해 전 세계 139개국에서 총 150만명이 수련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2023.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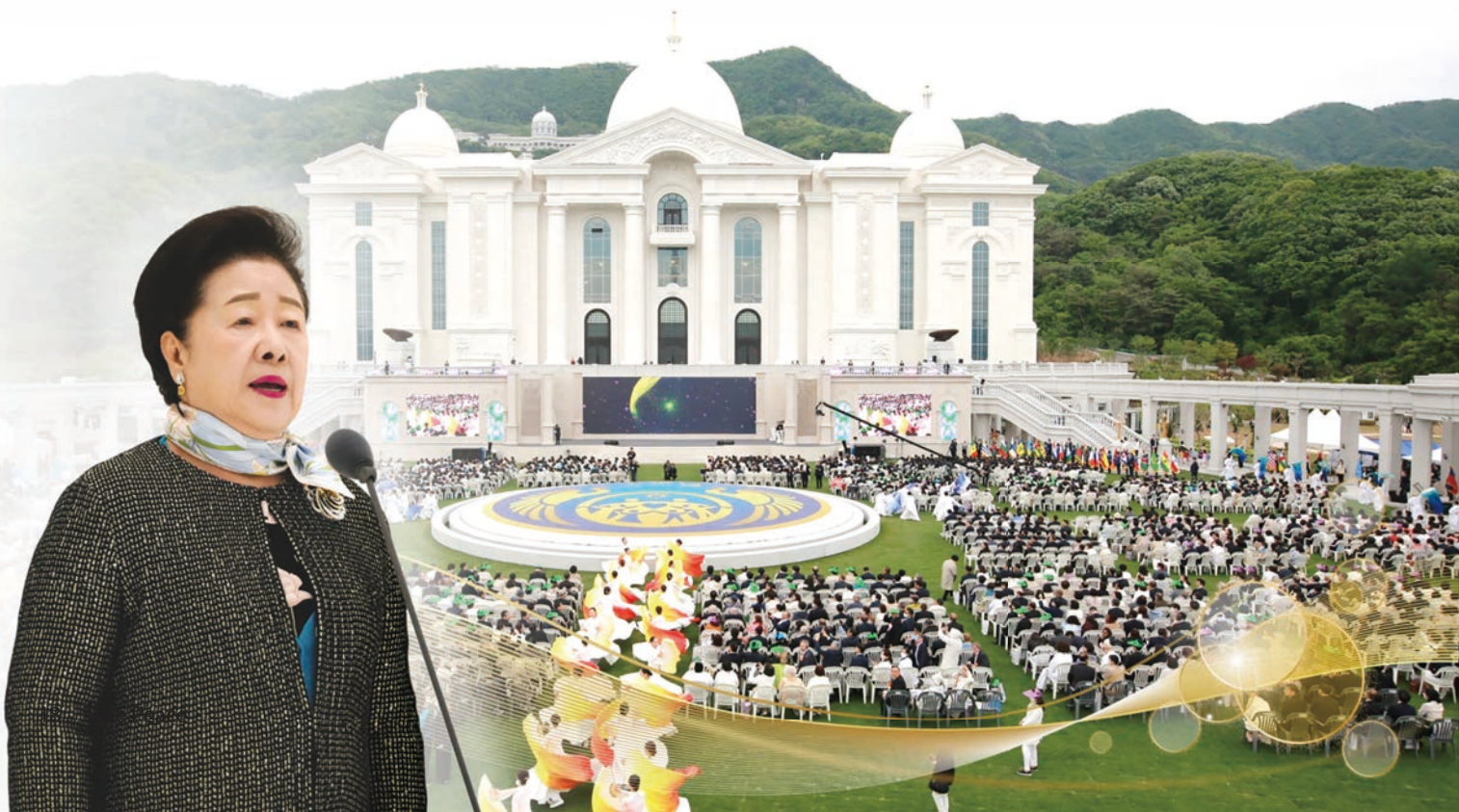
세계활동보고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하늘 섭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엄청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식구들이 하나 된 가운데 올려진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참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의 승리적 봉헌으로 신통일세계 정착에 섭리적 토대 확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안착하시는 새로운 섭리적 시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야말로 2023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승리를 기반으로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맞이하기 위해,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기독교권 복귀를 통한 남북통일과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천심원 섭리

참어머님께서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새 시대에 맞게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시고 새출발을 명하셨습니다. 특히 참어머님께서는 “이제부터 전 세계 가정연합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시며, 조직체계를 천심원과 가정연합의 이원 체제로 정비하시고, 전 세계 대륙본부에 천심원 본원과, 교회마다 특별기도실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리 하시는 영적 환경권을 확대하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전 세계 대륙이 함께 정성과 활동을 해 나온 결과 어느새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이 900회를 넘어 1,000회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어머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전 세계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미래인재 양성

참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분야는 다름 아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최근 참어머님께서는 “2세들이 국가복귀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한다. 2세들은 축복가정, 우리 미래의 중심이며 꽃이다. 그러니 세계로 활짝 피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선문 UPA 1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청년선교사 파송을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초, UPA 생도인 참가정의 문신출·문신흥 생도를 포함한 60여 명의 선문 UPA 생도가 졸업식 이후 해외 선교 현장에 파송될 예정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들의 해외 선교 파송을 놓고 “신탁건”이라는 명칭과 향후 “2세 권의 모델 노정으로 하리”는 지침을 주시며 미래세대 양성에 대한 섭리적 방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4. 천일경전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시대에 맞는 말씀이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천일국의 전통 확립을 위한 교육 강령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본질, 그리고 축복가정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심정화 교육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세계본부는 선문대학교와 선학UP대학원대학교 신학 교수진을 하나로 묶어, '참부모신학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참부모신학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신한국과 세계지도자들은 특별교육 공청회를 통해 천일국시대 섭리관을 교육받고 많은 의견을 공유하며 연구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참어머님께서는 '참부모신학 연구'의 제목을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로 정해 주시며,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5일에는 참부모신학 연구의 최종목표인 "천일경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어 그에 따른 추가 연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주요섭리국가

참어머님께서는 태초의 하늘부모님의 이상과 참부모님의 소망, 인류의 꿈을 위한 천일국의 안착완성을 위해 분초를 아끼시며 전 세계 대륙을 총체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섭리를 진두지휘 하고 계십니다. 이에 참어머님께서는 자녀인 축복가정에게 신령과 진리로 전도에 힘쓰며 하늘부모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 매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신한국은 참어머님의 심정과 사정에 완전히 부응하여 책임완수를 위한 6개월의 노정을 밤낮없이 전진하며, 뜻 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세를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륙에서도 축복가정들과 2세 권이 완전히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어머님께서는 친히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시어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특별집회를 개최하셨으며, 참석한 기독교 성직자들 앞에서 '기독교의 본질',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그 결과 참석한 모든 성직자들은 가정연합 깃발에 사인한 뒤, 깃발을 높이 올리며, 자신들 교회에 천심원 기도실을 설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6. 대륙활동

지난 5월 참어머님께서 세계본부를 재정비하신 이후 가장 먼저 세계순회를 명하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신유럽, 신남미, 신중미, 신아시아태평양, 신아프리카 대륙을 순회하며 참어머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륙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실 틈 없이 세계순회를 마친 저는 매월 대륙별 정례회의, 146개국 국가회장과 1:1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세계본부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세밀히 현장 상황을 살피고, 투명성 있는 운영과 신앙성장, 교회성장을 위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신유럽 중동대륙(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국가회장)은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신유럽과 중동대륙은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며, 신남미 대륙 브라질에서도 전도 시스템 강화 활동 및 전도 대상자를 위한 천심원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아시아태평양에서는 '자나 깨나 전도하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 160명의 새 식구 전도와 120명의 휴면 식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신아프리카 본부가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3,000명이 넘는 식구들이 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복귀 1호 국가인 상투메 프린시페에서는 활발한 전도활동을 펼치며 3개월 만에 예배 참석인원 2배가를 달성하는가 하면, 정부를 지원하여 '직업훈련 청년교육센터'를 오픈하면서 실질적인 국가복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잠비크에서는 전화 전도를 통해 교육한 결과 3개월간 80여 명의 새식구를 증가시키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부 보고 받으신 참어머님께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으며, 신아프리카 섭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두 명의 천심원 분원장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지난 한 해 각 대륙의 실적과 승리는 참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식구님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3년 한 해 모두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은 참어머님 말씀처럼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희망과 승리의 실적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甲辰年, 희망찬 한 해 총진군하자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푸른 청룡의 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신년 말씀에서 “갑진년 청룡의 해, 천일국 12년에는 모든 샷된 기운을 날려 보내고 다가오는 하늘 섭리의 완성 천일국 13년이 되는 때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승리적으로 이루어 내자”시며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것에 섭리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리 정돈 질서가 잡혀서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총진군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저는 작년 말 2023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 세계 국가회장과 각각 40분씩 1대1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일간 총 140명의 국가회장과 오전 7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화상으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화상회의는 각 국가의 6개월간의 활동 보고 및 현장 상황 공유, 질의응답, 참어머님 말씀 전달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 국가회장을 통해 6개월간의 활동 보고를 받을 때면, 현장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식구님들의 정성과 신앙에 오히려 힘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정적으로 현장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현장’이라는 단어로는 답을 수 없는 각양각색의 상황까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 국가나 공산권 국가는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 정부 감시를 받으며 ‘나비 작전’처럼 숨어서 선교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 내전, 정권 붕괴, 식량난 등으로 인해 교회 식구들이 모두 해외로 흩어진 상황에서도 국가회장만은 홀로 남아 성지를 지키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 대륙의 식구들이 참부모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 활동하는 소식을 들을 때면 ‘언젠가 이 정성이 꽃 피우리라’는 그들의 다짐과 결의가 눈앞에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며 참부모님의 말씀과 가정연합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참어머님 말씀에 따라 전 세계 대륙의 천심원을 중심하고 영적 부흥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각 국가는 가정연합 내 천심원 기도실을 세우고 기도 정성을 들이며 믿지 못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하늘이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원인불명의 병으로 눈멀었던 소녀가 눈을 뜨게 되었고, 또 다른 대륙에서는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 6개월 만에 1,500명의 새 식구가 입회원서를 쓰는 기적도 일어났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160명의 휴면 식구를 다시 교회로 불러올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는 식구들이 난민이 되어버린 가운데 참어머님의 사랑과 위상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결의하며, 타국에서 예배 2배가를 달성했으며, 전화 전도 활동을 통해 3개월 만에 80여 명의 새 식구 전도에 승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2세 청년들이 참어머님의 말씀을 접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젊은 2세 권으로 국가회장을 세대 교체하며,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더욱 투명하게, 활기 차게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참어머님을 만난 유럽 청년들은 각 현장으로 돌아가 교회를 열성적으로 서포트 한 결과 휴먼 2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각 대륙의 부대륙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양육 및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자체적으로 선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효정랑 1기생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지도자도 놀랄 만큼 2세 신앙과 교육에 불을 붙이고 있었고, 남미에서는 한국 21일 수련을 통해 핵심 청년을 교육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가정연합의 핵심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아시아 YLT 프로그램 개편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전 세계 대륙의 소식을 접하며 저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구들의 사정까지 더욱 깊숙이 느끼며, 심정적으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중에는 단 한 번도 참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한, 한국에 와보지도 못한 식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제나 참부모님의 사정과 심정에 하나 되어 자나 깨나 효성 지극히 부모님을 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세계 본부는 진심으로 더욱 힘을 내서 참어머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참부모님의 사랑을 전파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인류 한 가족 한 형제자매입니다. 아무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해도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우리는 모두 순식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2024년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한 발짝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 성장을 이루어 전 인류가 하늘부모님 아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천상의 참아버님께서 영계를 휘몰아쳐 우리를 향해 영계를 동원해 주시고, 지상의 참어머님께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지상과 천상의 모든 영적 역사가 동원되어 성령의 대폭발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모든 길을 밝히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전진하시는 2024년이 되십시오. 2024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참어머님과 하나 된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ES 2024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

세계인, K드론축구에 뜨거운 관심, 드론축구대회 세계적 인지도 향상
현장 부스 중 관람객 가장 많이 몰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CES 2024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현지 시각: 양 1.9~12)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대 정보기술 흐름과 비전을 가늠하는 새해 연례행사로 정평 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대에 첫선을 보인 'CES 2024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는 행사 내내 화려한 정·재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번 드론축구대회에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 CES 방문 연합국에서 각 2팀씩 총 6개 팀이 출전해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행사를 위해 CES 주 전시장 내부에 처음으로 가로 17m, 세로 8m, 높이 5m 규격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이 설치됐다. CE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가 드론축구의 기술력과 혁신성, IT 코딩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적 효과 등을 인정해 경기장 설치 및 대회 진행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서 선보인 드론축구경기 (사진제공: 국제드론축구연맹(FIFA))



드론 축구 대회 개회식 (사진제공: 세계일보)

개막식 시축(Kick-Off)은 세계일보 창립자이신 참여머님을 비롯하여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토마스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회장이 맡았다. ‘공생’, ‘공영’, ‘공의’와 세계일보의 3대 사시 ‘애천·애인·애국’이 적힌 깃발을 매단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르며 드론축구대회의 공식 출발을 선언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드론은 IT 신기술과 항공 분야의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수단이자 혁신 플랫폼으로 CES의 인기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올해로 창간 35주년을 맞는 세계일보는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대회와 드론날씨대회를 선도적으로 개최하며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CES에서 선보이는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가 한류의 새역사를 쓴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처럼 한국 드론 산업의 새역사를 만들어가 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박성중 국민의 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사장단, 정상혁 신한은행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사장), 오세천 LG전자 전무, 광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이동욱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대표단으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김신 SK 증권 등 10명의 투자사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특히 올해로 창간 35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일보는 ‘드론축구대회’를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경기가 아닌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을 통해 인종, 종교, 문화를 넘어선 화합의 장을 만드는 제2의 피스컵으로 만들어 신통일한국 실현에 큰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 및 다짐과 함께 본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보희 회장 성화 5주년 윤기숙 사모 성화 7주년 기념예배

박보희 회장 성화 5주년(윤기숙 사모 성화 7주년) 기념예배가 천일국 11년 천력 12월 2일(양 1.12) 파주원 및 원전에서 마련됐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참부모님께서 미국 선교를 위해 떠나시는 박보희 회장님께 “비봉득경 활약만승(飛鳳得境 活躍萬勝)”이라는 휘호를 써 주시며 ‘봉황이 날아 그 무대를 얻으니 활약하여 만 번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일평생 하늘 향한 효정의 삶을 보여주신 박보희 회장님의 삶을 지표로 삼아, 우리 역시 영원히 기억될 귀한 생애를 위해 두려움과 좌절과 후회가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자.”고 밝혔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의 회고사를 통해(박중현 회장 대독)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일가의 영원한 형님이요 개척자이신 ‘충효봉신자’ 박보희 회장님은 평생을 지근거리에서 참부모님을 모시며, 절대순정·절대복종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며 “참부모님을 보좌하고 고르바초프, 레이건, 대처, 김일성 주석 등을 움직이며 막후 역할을 담당하신 박보희 회장님은 냉전종식의 숨은 주역자이자 약소국 한국을 대표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요, 자랑스러운 애국자’이시다. 회장님은 우리 교단을 넘어 우리 국가의 자랑스러운 보배요 자산이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님께서 영계의 참아버님을 모시고 천상섭리를 굶어살펴 주시니, 우리는 지상에서 참어머님을 모시고 백두산 산상봉에 통일기 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여 승리하자.”고 피력했다.

이날 기념예배는 노다 코지 효정한국문화재단 상무의 사회로 개회기도(김석진 대교회장), 환영사(박노희 회장), 헌화(리틀엔젤스 동문단원대표 외), 기념사(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회고사(양창식 UPF 세계의장, 김동연 신한국 부협회장), 역만세 삼창(조만웅 원로회 회장) 순으로 은혜롭게 진행됐다. 



2023 평화상 축하 연회

<2023 평화상 축하 연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19일(양 12. 30) 뉴저지의 힐튼 해즈브룩 하이츠 메도우랜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나오키미 우시로다 뉴저지주 가정교회 목사, 배리 켈러 천주평화연합 신미국 뉴저지주 이사장, 브루스 그로드너 천주평화연합 신미국 뉴저지주 사무총장, 그렉 아굴란 미국성직자협의회 뉴저지주 이사장, 엘리자베스 가정교회 목사, 그리고 카타리나 코너리 세계평화여성연합 신미국 부회장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88명 참석했다.

2023 평화상 축하 연회는 주요 프로그램은 초종교 합수식, 오찬, 2023 활동 보고, 찬양 그리고 참가단체 소개, 활동 우수자 시상,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Peace Starts With Me’는 비전 2020의 모토 아래 세계평화 실현과 인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에게 수천 명의 성직자와 수많은 신앙 공동체의 회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세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3년 성과 보고 및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이클 켄킨스 회장은 ‘Peace Begins With Me and Thee: 평화는 나와 너부터 시작된다’의 주요 메시지를 공유하며, “창설자의 가르침에 따라 참석자들이 개인의 관점이 아닌 세계적 관점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공유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전 2025·2027 승리를 위한 정성: 12일간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네팔 가정연합에서는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7일부터 18일까지(양 12.7~19) 12일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 Everest Base Camp) 트레킹을 진행했다.

해발 약 5,364미터(17,598피트)에 자리한 EBC 트레킹은 단순한 육체적 여행이 아닌 ‘목숨을 걸면 못 할 게 없다’는 신념과 비전 아래 2025·2027 승리를 위한 정성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트레킹에는 비노드 땡기 네팔 UPF 사무총장, 비에라 자우피(식구), 사이먼 자우피(2세, 21세), 다덴디 셰르파(현지 가이드), 라이(헬퍼) 등이 참석했다. 트래커들은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온 가정연합 깃발과 통일기를 휘날리며 모든 승리적 결과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올렸다.

비노드 네팔 사무총장은 “가장 높은 EBC 트레킹의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가파른 경사는 물론 거센 바람도 이겨내야만 했지만, 그 여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다양한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문화, 친절함을 경험함으로써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한 식구들은 “놀랍고 아름다운 천상의 하늘부모님의 창조를 경험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고통과 희망 그리고 성취의 시간을 통해 개개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깊은 심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3 캄보디아 통일무도 전국대회

캄보디아 통일무도연맹과 캄보디아 교육부 주관 <2023 통일무도 전국대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양 12. 27~30) 6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통일무도 전국대회 개최식에는 가장 먼저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무도 겨루기, 자유 무술, 승급 심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개최식 이후에는 1.성숙한 인격 형성 2.행복한 가정 형성 3.통일무도를 통한 사회 공헌을 주제로 효정인성교육이 이어졌다.



석준호 세계통일무도연합 회장은 폐막식 연설을 통해 “통일무도는 1970년대에 참부모님에 의해 창설되어 통일교의 일부로 개발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무도’는 ‘통합 무술’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러 무술의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참부모님께서 통일무도를 창설하시며 통일무도를 통한 세계평화, 통일무도를 통한 올림픽 참여를 말씀하셨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무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석준호 회장은 “참어머님께서 (양) 2019년 8월 28일 세계통일무도연맹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통일무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 가정, 종족, 나라, 세계를 위한 것이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부모님께서 자랑스러운 내 아들딸이구나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전하며, “참사랑의 실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사상의 주창자이신 참부모님 양위분의 심정과 하나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순간에도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밤잠을 못 이루시며 눈물겨운 수고를 하시는 참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야 한다. 신통일세계를 이루는 데 주도적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제28차 중남미 33개국을 위한 특별낚시정성

(양) 1996년 12월 1일부터 진행된 참부모님의 중남미 특별낚시정성이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2일부터 신 중남미 우루과이에서 <제28차 33개국을 위한 특별낚시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부모님께서는 1996년,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에서 특별낚시정성을 들이시며, 숫자 33의 의미를 1919년 3·1운동의 해방 행진을 시작한 33명에, 1825년 우루과이에 들어와 브라질군과 대립한 33명의 동양인의 수에 비유하시며 중남미 33개국에 해당하는 낚싯대 33개를 배치하셨다.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중남미를 위한 ‘내적 헌신’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 주셨다.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 전통을 지켜나온 ‘중남미 특별낚시정성’은 12년간(12월 1일~1월 31일) 매해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40일, 21일, 10일로 그 기간은 변경되었지만 고유한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 HJ 스튜디오 개관식

브라질 상파울루 남미대륙본부 주관 남미 지역 1호 미디어 스튜디오 개관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5일 (양 12.17) 성황리에 개최됐다.

브라질 HJ 스튜디오 개관식에는 김동우 신남미 대륙 회장, 발치르 잔칸 브라질 부협회장, 사무엘 오타 리나레스 신남미 청년연합회장, 올다일 지 알메이다 상파울루 교회 목사 등 3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1997년 10월 4일 참부모님께서서는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하시며,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다. 이에 브라질 HJ 스튜디오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미디어 역량 향상,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날 김동우 대륙 회장은 “브라질 가정연합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남미 전역에 전달되어 ‘신 환경 운동’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모잠비크, 21일 원리 수련회 및 효정천보특별수련

신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28명(12세~18세)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원리 수련회가 천일국11년 천력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양 12.8~12.28) 진행됐다.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통일원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련회에서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참된 가정, 참된 부부, 참된 자녀의 가치를 교육했다. 나아가 참부모님의 비전을 토대로 참된 결혼과 가정,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으며, 올바른 순결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청평찬양역사의 은혜와 천심원 기도회의 은혜가 연결된 가운데 진행된 모잠비크 효정천보특별수련에는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고 풍성하게 인도됐다. 



잠비아, 21일 원리 수련회

잠비아 가정연합과 HJ천주천보 신아프리카 분원 주최 <21일 원리 수련회>가 루사카에서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28일부터 천력 11월 19일까지(양 12.10~31) 성황리에 개최됐다.

HJ천주천보 신아프리카 분원 21일 원리 수련회에는 1세·2세 식구 54명이 참석했다. 수련회는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축복의 가치, 천심원의 섭리와 철야 기도, 제반 활동, 다짐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천심원에서 끊임없이 들려진 영성기도와 철야기도정성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2024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금번 수련의 가장 큰 목표는 미래세대에 참어머님의 심정을 상속하기 위함이다. 또한 2024년 1월의 HJ랑 양성 프로그램 준비 및 축복식 준비에 있다. 



잊지 못할 내 고향, 부르키나파소

캐서린 플래너

유소년기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교부에서 근무하셨던 아버지의 정기 전보로 인해 잦은 이사와 전학을 가야 했지만 제게 닥친 외로움과 상실감은 어느새 스스로 많은 것을 질문하고 답하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물론, 개인 문제, 이웃 문제,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품으며 사회 제반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 가장 성실한 삶이라 여기며 간호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원리와의 첫 만남

17세 무렵, 저는 간호학교 실습을 위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응급환자를 간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볼 때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고통이 없는 것일까?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등의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 3 졸업여행으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이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 우연히 젊은 여성 한 명이 새 진리인 통일원리를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 또한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렸고, 그 자리에서 창조론과 타락론을 접한 저는 ‘이야~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말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통일원리가 설명하고 있는 창조원리, 타락론, 구주론은 제게 새로운 관점의 세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속이 뻥 뚫린 것만 같은 내용을 접한 저는 그때부터 그 여성을 따라 일주일 원리 세미나도 갔었고, 활동도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불현듯 제 머릿속에는 유년기 몽시가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잠에서 깬 이후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된다면, 그를 따르리라는 다짐을 해왔습니다. 통일원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제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아닌 통일운동에 합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행동이 가족들은 물론 친한 친구와 동료에게는 절대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활동에 나서겠다는 제 결단이 꺾이지 않자, 어머니는 통일원리를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문선명 선생은 20세기의 예언자임은 틀림 없다.”시며 최초로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다

저에게는 통일원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데 문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교 3개월이 지난 저는 해외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시 선교지로 배정된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위치한 국가이며 토고, 가나, 코트디부아르, 베냉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896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1946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편입되었다가 1960년 오토볼타공화국으로 독립한 뒤 1984년 국호를 부르키나파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선교 파송 당시 부르키나파소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기에 최대한의 안전 매뉴얼을 교육 받은 뒤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를 경유해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나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간비행기를 타고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한 제게 보이는 것은 황량한 벌판, 멀리서 보이는 먼지구름, 엔진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 이슬람교도의 상징적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어깨에 자동소총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독일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무사히 볼 일을 마치고 대사관을 나선 제 눈에 백인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였던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저는 그들을 통해 부르키나파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팁들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의 경제적 상황까지도 걱정해주며, 그들이 근무하는 곳 내 의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선교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제 근무지를 방문하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틈틈이 통일원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행동을 알게 된 두 명의 기독교 선교사가 저의 활동을 크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제게 찾아와서 “그 교회에 가지 마시오. 거기는 이단 교회이니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저를 위한 기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면 통일교회를 정확히 알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선교사 한 명이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타국에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활동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비전을 찾아가며 하루하루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도착한지 3주쯤 지난 어느 날, 저희 둘은 상의 끝에 더욱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는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통일교회와 통일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또 다른 시간에는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원리 교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는 당시의 현지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통일원리를 전달하여도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소수 인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내무부 국장의 수양딸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저희 셋은 그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통일원리를 전파했고, 그녀 역시 저희가 아프리카 문화와 분위기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과 통일원리 교육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을 무렵 통일교회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75년 6월, 부르키나파소에 또 다른 선교사가 도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동서양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니 해결되었습니다.

1976년 2월, 저희 셋은 비자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와가두구에서는 당일 날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그것과 달리 대사관 직원들은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비자발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간이 임박해질 무렵,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당장 부르키나파소를 떠나시오”라고 적힌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이미 타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게 되니 그 느낌은 정말 달랐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찾아서 부르키나파소에 남아 하늘부모님의 뜻을,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리 속에 내무부 국장과 인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언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그때 저와 한 약속을 잊지않고 지켜주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저희 셋은 그때부터 대사관 감시 하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셋은 우여곡절 끝에 부르키나파소에 저희를 남기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되새기며 기적적인 방법과 아이디어를 찾고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활동이 불가하다면 이후를 위해서 경제기반을 마련해 놓자는 모두의 의견을 따라 저희 셋은 아이스크림 판매 사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게도 실패였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통해 마침내 저희 셋은 유럽인을 대상으로 피자 판매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정말 대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저희는 그 기반을 통해 눈에 띄지 않게 선교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

1977년 10월, 본격적으로 통일원리를 통한 개인 성장, 믿음의 자녀 찾기, 믿음의 자녀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센터로 데려와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했던 내용들을 좀 더 세밀히 교육하며, 주말 세미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 각기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참부모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과 하나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저희는 가정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센터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찾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통일원리를 중심 한 정기 세미나, 가정교회 활동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부르키나파소의 믿음의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통해 원리 강의를 듣고 7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상 가정이 있는 여성이 집 밖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그녀는 강한 의지와 자제력을 보여주며, 7일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정연합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통해 믿음의 자녀가 늘어난 반면 경제적 상황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빨리 인식한 미국인 선교사가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독학으로 컬러사진 제작을 습득한 상태였기에 그녀는 주변의 도움으로 컬러 사진관을 개업하게 되었고, 이는 완전 히트 그 자체였습니다.





80년대에는 컬러사진이 흔치 않았기 그녀가 사진관에서 컬러사진 인쇄와 사진 작업 교육을 도맡으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안, 나머지 선교사와 믿음의 자녀는 통일원리 강의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교육하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결혼식

고비와 해결이 반복되는 동안 어느새 저도 축복 매칭을 받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1982년 7월 1일 저는 버나드라는 이름의 남성과 약혼 매칭이 되어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2075쌍 국제합동 축복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버나드는 하늘 뜻에 순종하며 부르키나파소에서 저와 함께 선교사 부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선교팀은 나이지리아 모금 활동을 시작으로 북쪽에 있는 카노와 남쪽의 주요 도시까지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활동과 동시에 나이지리아인과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레이저 프린터 셀링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 저희는 언어와 문화, 환경까지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서 경제적 안정은 물론 좋은 인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내 고향, 부르키나파소

1983년 8월 4일,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부르키나파소는 독재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버나드는 엔지니어로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와가두구에 공작기계 작업장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그 작업장 프로젝트는 콩고 민주공화국 킌사사로 이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부부에게 얼마 동안일지 모를 이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버나드는 업무상 킌사사로 떠나게 되었고, 저는 제게 주어진 미션을 위해, 위험에 처한 부르키나파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시 정치적 상황은 모든 선교사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점령한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언론탄압, 권위주의적 통치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밤낮없이 총성이 들렸고, 반역자는 체포되기 일쑤였습니다. 국경이 공식적으로 폐쇄되면서 선교사들은 각자 흩어져 선교 미션을 실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몇 날 며칠을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걷고 또 걷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참아 버님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실 때의 행군하셨던 것을 조금이나마 심정적으로 체험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꿈속에 참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화려했고 평온하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방법은 분명 찾아질 것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참어머님의 모습은 제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 현실을 더욱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후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었고, 다시 선교사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정기 세미나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늘은 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인정하듯이 새로운 게스트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헤어짐의 시간

1984년 여름, 부르키나파소를 떠나 킌사사로 이주하라는 세계선교국 팀장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내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늘이 진정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40일간의 정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계선교국에서는 그간의 제 업적에 대한 수고와 위로를 전하며, 킌사사로의 이주를 명했습니다.

킌사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의 그간의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많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닦고 또 닦으며, 부르키나파소에서의 모든 시간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작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킌사사로 가게 되는 것 역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제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킌사사 공항에 도착한 저는 남편 버나드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간의 부르키나파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킌사사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원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것은 모두가 놀랄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버나드 역시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교육에 대한 소망을 아프리카인을 대상으로 펼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저는 그동안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눈부신 통일운동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성과는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늘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더 고생해서 많은 실적을 세웠더라면 오늘날 참부모님께서 고생을 덜 하실 수도 있으실텐데’라는 생각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일치시켜, 통일교인으로서 축복가정으로서 자녀 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CE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THE SEGYE TIMES

세계일보 드론 축구 대회 CES 2024

THE SEGYE TIMES DRONE SOCCER CHAMPIONSHIP 2024

Jan 9~12, 2024

